

# 4대 종교가 한마음으로 통(通)하다

## 세계종교문화축제, '내 안의 기쁨이 당신에게' 주제로 전주 풍남문 등에서

‘천주교·불교·원불교·개신교’ 4대 종교가 공존하는 축제가 열린다. 전라북도가 주최하고 세계종교평화협의회가 주관하는 <2016년 세계종교문화축제>가 오는 20일 풍남문에서 첫 일정을 시작으로 24일까지 이웃종교와 상생 및 화합의 장을 이어간다.

‘내 안의 기쁨이 당신에게’를 주제로 한 이번 축제는 전주풍남문 일대 및 익산, 김제, 완주, 진안에서 펼쳐진다. 프로그램은 ‘여는마당 종교열린마당 종교문화마당, 세계종교포럼 종교아울마당, 달는마당’ 등 총 6마당으로 구성된다. 행사는 각 종교의 공연 및 성물과 음식, 영화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통해 4대 종교가 서로 이해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오는 20일 7시 풍남문에서 개최되는 <여는마당>에서는 개신교 판소리, 원불교 교무밴드, 불교 스님의 색소폰 연주, 천주교 중창과 목사님, 스님, 교무님, 신부

님 등 4대종교지도자들이 평화를 노래한다.

축제공연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내가 만일’을 부른 가수 안치환이 꾸민다.

또 각 종교별 색채가 묻어나는 <종교 열린마당>은 21일 오후7시 평화의 날 천주교 ‘납이시여 사랑이시여’와 자비의 날 불교 ‘강릉 관노 가면극’을 시작으로, 22일 사랑의 날 개신교 ‘무지컬 문준경’, 24일 은혜의 날 원불교 ‘백년 꽃이 활짝 피었네’가 풍남문에서 열린다.

종교문화엑스포<종교문화마당>에서는 종교와 의료, 교육, 여성, 인권, 과학, 문학, 성물, 음식, 복식, 음악, 미술, 건축, 영화 등 각 종교 속에 녹아 있는 문화콘텐츠를 소개한다.

또한 이웃 종교문화를 탐방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이는 2016 세계종교문화축제 홈페이지



www.wrcf.or.kr에서 접속 후 선착순 참여 가능하다. 특별히 이번 축제에는 신시도 관련 문헌, 교황청에서 한국에 보낸 최초의 서신이 사상 처음으로 공개된다.

21일 오후 4시에는 연민을 주제로 <세계종교포럼>이 열린다.

포럼에는 유네스코의 마토코사무총장보가 초청돼 세계종교평화를 위한 강연 및 대화를 나눈다.

이어 ‘북(BOOK)돋움’ 행사를 진행한다. 이는 종교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경 없는 종교 캠페인으로, 아프리카를 포함한 제3세계 청소년들과 190여개 유네스코 회원국 대표부에게 전주 한지로 만들어진 공책을 전달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2016 세계종교문화축제 관계자는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나눔과 상생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널리 알리려고 축제를 마련했다”며 “‘내 안의 기쁨이 당신에게’라는 주제에 맞춰 우리 축제를 통해 4대 종교의 독특한 문화를 서로 이해하고 타종교와 교감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278-1101. /정해은기자

### 정읍시, 추석 악극 '꿈에 본 내 고향' 초청 공연

정읍시가 추석맞이 우수작품 초청공연을 마련했다.

시는 ‘민족 큰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진한 고향의 향수와 우리 민족의 애절한 삶이 담긴 악극 ‘꿈에 본 내 고향’을 초청, 오는 11일 오후 2시와 5시에 정읍시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공연한다’고 밝혔다. 이번 작품에는 유명배우들이 전 원주, 이대호, 심양홍, 황병식, 박선주 등이 대거 출연해 재미와 감동이 있는 100분 간의 화려한 무대를 펼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한국악극보존회에서 기획한 작품으로, 8세 이상의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다. 관람티켓은 티케팅(1888-7800)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시는 판매되지 않은 잔여석은 공연 당일 오후 1시부터 예술회관 공연장 입구에서 티켓을 판매할 예정이다. 가격은 2층은 5천원, 3층은 3천원으로 예술인패스소지자와 청소년은 30% 할인, 장애인은 50% 할인 받을 수 있다. 김생기 시장은 “추석을 맞아 우리의 역사와 담긴 수준 높은 우수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만큼 많은 이들이 함께 관람하며 즐거운 명절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 '문제의적 인간 연산' 리더상 그려

####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 오후 공연

‘문제의적 인간 연산’이 9월~10월 오후 4와 7시30분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공연된다.

이번 공연은 전주대학교 공연연계인턴트학과 졸업작품으로, 작은 이윤택, 지도교수는 박병도 연출은 최지은이 맡았다.

‘문제의적 인간 연산’은 극적으로 살다간 한 임금의 이야기를 인간의 깊은 내면을 통해 또 다른 시각으로 해석해 본 작품이다. 연산은 어머니 폐비 윤씨의 기일을 맞아 제사를 지내려 하지만 대신들은 유학파 선왕들의 유지를 들어 이를 만류한다. 뿐만 아니라 왕명을 일일이 거스르려 왕권을 업신여긴다. 연산이 왕이 되자 지난날의 사적을 거부하며 스스로의 왕권을 세운 후 어머니의 제사를 거행한다. 이 과정에서 녹수는 집신을 받아 폐비 윤씨의 혼을 입는다. 폐비의 혼을 받은 녹수는 자신과 아들 윤을 죽이려 했던 엄귀인과 정귀인의 음모를 밝히고 이에 격분한 연산은 엄귀인과 정귀인, 그리고 인수대비를 차례로 살해한다.

이어 연산은 개혁을 위한 과도한 왕권을 휘두르려 피의 화살을 시작하고, 이를 말리는 측근 내시 처선마저 죽인다. 그러나 환관 송재가 데리고 온 완산왕을 보며 연산은 다시 완산왕에 빠져든다. 이에 격분한 녹수는 완산왕의 소복을 잘라 연산의 수라상에 올린다. 이때 성희연과 박원종 무리들이 들어다쳐 연산과 그의 심복들을 죽임으로써 연산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문제의적 인간 연산은 영의 세계로 돌아간다.

이 작품은 폭군으로 알려진 연산군의 인간적인 면모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가함으로써 역사를 해석하는 진지한 시각을 잘 보여준다.

연출가는 이번 공연을 통해 “연산이 당 시대의 어지러운 상황의 인물에 묶여있는 것이 아닌현대의 인물에 대입하여, 작금 위정자 주변의 상황에 의해 부장하는 여러 리더들의 모습을 보여 주고자 했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 추석 연휴, 가을여행은 가족과 함께 완주로

#### 대한민국 스테이박물관, 삼례문화예술촌 임시무료개방

완주군이 추석 귀향객과 가을 관광객을 겨냥한 문화여행주간과 가을여행주간을 지정하고 가을 여행 맛에 나선다.

군은 오는 9월 10일부터 18일을 문화여행주간, 10월 24일부터 11월 6일을 가을여행주간으로 정하고 귀향객 및 관광객에게 공공 관광시설인 대한민국 스테이박물관과 삼례문화예술촌을 무료 개방한다.

이번 여행주간은 최근 로컬관광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완주에 더 많은 관광객과 귀향객 방문을 위해 대표 공공 관광시설의 문을 활짝 열게 되었으며, 무료 개방 관광시설과 합인시설을 중심으로 완주 매력에 빠질 수 있는 투어코스를 개발하여

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일부 관광지, 숙박·체험시설, 음식점별 이용료 할인 등 한가위 보다 더 풍성한 여행서비스를 제공하며 계획이다.

신봉준 행정복지국장장은 “전년보다 더 즐겁고 새로워진 완주와이드투드 축제(9월 23일부터 25일까지)를 준비해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으며, 다가오는 가을 여행주간에도 대문에서 개최하는 THE 청춘 낭만 콘서트를 시작으로 많은 문화행사를 펼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 여행하기 좋은 완주, 로컬관광 1번지 완주의 매력을 맘껏 보여줄 계획이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기자



우리 국악을 중심으로 흥취 지아낸 '신 명불허전' 공연 모습

### 전북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 성료

#### 명창과 함께 교감의 시간

2016 전북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이 오는 10월 21회 공연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사)전통문화마을은 우리국악을 중심으로 한 <신 명불허전> 공연을 지난 5월~9월간 매주 토요일 전북도청 야외공연장 무대에 올려 왔다.

올해 공연에는 무형문화재와 그 전수자 등 전북의 명인·명창들을 비롯해 도내 신진예술단체와 예술인들까지 폭넓게 참여했다. 이들은 창작 타악과 전통 연희곡, 국악 관현악단, 한국 무용 등 우리 전통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공연단체와 함께 우리가락의 흥취를 지아냈다.

이와 함께 ‘찾아가는 우리가락 우리마당’으로 익산시와 군산시에서도 공연을

펼쳤다. 이를 통해 그 지역의 우수한 국악 예술인들에게 무대 기회 제공은 물론 도민들이 문화예술 공연을 향유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했다. 또 매주 우리 고유 전래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해 도청을 찾은 가족단위 관람객들에게 체험의 장을 선사했다.

전통문화마을 관계자는 “온 가족이 편안하게 공연을 즐기고 행복감을 느끼도록 공연을 마련했다. 도민과 함께 교감할 수 있는 공연이 펼쳐져 뜻깊었다.”고 말했다.

10일 오후 7시40분 폐막공연에서는 완산 풍물단의 길놀이와 전통예술단 동락의 앉은반 사물놀이, 대공연주자 이창선, 날마루 무용단의 창작 무용 국악관현악단 다음의 무대를 만나볼 수 있다. 문의 232-1902. /정해은 기자

### 내일 군산예술의전당에서 버스킹 미술공연 '김말이쇼' 열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버스킹 공연이 오는 10일 저녁 7시 군산예술의전당 야외광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지역 내에서 다수의 거리공연 경험을 보유하고 프 로미컬사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김승준의 '김말이쇼'가 준비되어 있다.

'김말이쇼'는 '김'승준의 '말'도 안 되게 '이'상한 '쇼'의 약자로, 관객들과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흥겨운 무대로 꾸며질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군산예술의전당 야외광장 버스킹 공연은 예술의전당 개관 3주년을 맞이하여 보다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발돋움하고자 마련됐다.

버스킹 공연은 지난 3개월간 서커스 리

썬과 B-boy 소울원터즈, 오카리나 연주단 오카벨레 등이 참여해 1000여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큰 호응을 받았다.

예술의전당 관계자는 “산책하기 좋은 가을밤 예술의전당 야외광장에서 공연도 보고 야외조각상도 감상하며 신선한 가을바람을 느껴보는 문화힐링을 강력 추천한다”고 전했다.

한편 오는 24일에는 여성 소리꾼들로 구성된 소담소다아트팀의 신명나는 민요 한마당이 28일 문화가 있는 수요일에는 폭스 클래식 콘서트 '함보양모 콘서트'가 10월에는 대형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를 준비 중에 있다. /군산=문정곤 기자

## 피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lab.com/

<2016년 9월 9일>

<p><b>▷쥐띠</b> 46년생: 다치거나 아플 수 있으니 주의하라. 60년생: 정신적으로 힘들고 컨디션도 좋지 못하니 자중하라. 72년생: 매사 일찍 움직여야 얻을 수 있으니 서둘러라. 84년생: 동기인과 사비수가 따르니 가벼운 농담을 삼가라.</p>	<p><b>▷소띠</b> 49년생: 신상을 다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하는 운. 61년생: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르게 되니 투기나 투자는 삼가라. 73년생: 다른 사람과의 불화로 인해 일상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 85년생: 자신도 모르게 주장이 강해지는 운.</p>	<p><b>▷호랑이띠</b> 50년생: 하는 일에 막힘이 생기는 운이다. 62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 74년생: 주변사람의 도움과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면 성사. 86년생: 혼자 고민하지 말고 뒷 사람의 조언을 구해보라.</p>	<p><b>▷토끼띠</b> 51년생: 금전거래는 불리하니 하지 말아야 하는 운이다. 63년생: 구설수가 따르니 언행에 주의하면서 진행하라. 75년생: 귀인의 협조가 따르는 운이니 혼자자 아비를 명심하라. 87년생: 중요한 약속이나 일이 있다면 추진하라.</p>
<p><b>▷용띠</b> 52년생: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말고 큰 그림을 그려라. 64년생: 크고 작은 변화 속에서 위기의 함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운. 76년생: 손재수가 따르는 운이니 인력으로 막을 수 있는 운. 88년생: 속으로 생각한 것들은 외부로 표출하지 말고 때를 기다려라.</p>	<p><b>▷뱀띠</b> 53년생: 겉으로는 화려한 듯 하나 실속이 없는 운. 65년생: 자신은 갖지 않아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하는 운. 77년생: 뒷 사람에게 의지해야 잘 풀리는 운이다. 89년생: 정신력이 흐트러지는 운으로 집중력이 저하.</p>	<p><b>▷말띠</b> 54년생: 내 것이 아닌 것에 욕심 부리지 마라. 66년생: 지금은 지속하며 때를 기다려야 하는 시기다. 78년생: 주변의 관계를 돈독하게 재정립해야 할 운이다. 90년생: 한발자국 물러서서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p>	<p><b>▷양띠</b> 55년생: 베풀면 덕이 되어 돌아오는 운이다. 67년생: 지니친 과단성은 부작용을 불러오니 부드러움을 유지. 79년생: 다른 사람과의 화합이 용이한 운. 91년생: 때로는 겸손한 언행이 자기 자신을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법.</p>
<p><b>▷원숭이띠</b> 55년생: 상황에 끌려가지 말고 중심을 잘 잡아야 하는 운이다. 69년생: 시의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상이 악화. 81년생: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로 놀랄만한 일이 발생하는 운. 93년생: 손윗사람에게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 때다.</p>	<p><b>▷닭띠</b> 57년생: 지나치게 계산적인 생각으로 인해 기회를 놓칠 수 있다. 69년생: 협동하여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81년생: 고집은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막게 하는 요소가 된다. 93년생: 매사 하고자 하는 일에 계획을 잘 세워 진행하면 좋은 결과.</p>	<p><b>▷개띠</b> 49년생: 변동수를 갖는 것은 흉하니 때를 기다려라. 61년생: 심혈관계통에 주의할 때를 요하는 운이니 조심하라. 73년생: 매사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분수를 지키라. 85년생: 몸이 상해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고 실수가 따르는 운.</p>	<p><b>▷돼지띠</b> 47년생: 변화를 추구하면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59년생: 정신이 산만한 운이다. 사소한 실수로 구설에 오른다. 71년생: 자신보다 강한 상대와 함께 하라.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 83년생: 구설수와 사비수가 따르는 운.</p>